



뉴스레터: "숨겨진 영웅"

19-1호

2019년 9월

KDVA는 한미동맹을 대변하고, 한미동맹의 형성 및 양국 동맹을 위하여 복무한 모든 이들의 지원을 통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.

KDVA 이사진

- (예)美육군대장 월터 샤프
- (예)美육군대장 존틸러리
- (예)韓육군대장 권오성
- (예)韓육군대장 정승조
- (예)美육군중장 데이비드 발코트
- (예)美육군중장 존 존슨
- (예)美육군중장 버나드 삼포우로키 하더
- 김중욱
- (예)美육군원사 트로이 웰치
- (예)美육군원사 로버트 윈첸리드

9월 주요 뉴스 헤드라인

- 09/07:** “공동 평화 건설: 도전과 비전”을 주제로 2019 서울 안보 대화 개최.
- 09/10:** 北, 평양에서 80km 북쪽에 위치한 개천시에서 “초대형” KN-25 유도 로켓 2기 시험발사. 두 발사체 모두 330km 비행한 것으로 보고 됨.
- 09/19:** 9월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분야합의 1주년
- 09/23:** 트럼프/문재인 대통령, UN총회에서 9차-美 정상 회담. 양국 정상은 北-美 실무자간 협력상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, “대북 적대 행위 중단 원칙” 및 북한 비핵화 협조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.
- 09/26-27:** 제 16차 韓-美 통합국방협의(KIDD) 개최. 전시작전권(OPCON) 및 방위분담비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 논의.



회원 환영인사

주한미군전우회(KDVA)는 퇴역·현역 군인 및 국방·안보 관련 업무 종사자, 또는 한미동맹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저는 KDVA의 일원이 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며, 세계 최고의 동맹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한-미 동맹을 지원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KDVA의 사명에 회원 자격이 있는 모든 분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.

(전역)주임원사(CSM) 트로이 웰치(Trody Welch) 2019년 KDVA 가입

행사 & 활동

주한미군 전우회(KDVA)는 9월 20일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분기별로 진행되는 만남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많은 인파가 모여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지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사의를 표하였습니다. 조운제 주미대사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KDVA가 한국대사관 및 한미동맹에 보여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. 한편 샤프(Sharp) 장군께서는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새로운 내용들을 보고하며, ‘전작권 이전’, ‘방위분담금 협정’과 같은 현안을 조율함에 있어 더 강력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.



올해 9월 19일에 개최한 ‘KDVA 교육 회의 및 USAG 험프리 북부 장병을 위한 정찬 행사’에는 150여명의 내빈이 참석하였습니다.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께서 기조연설을 맡아 한미동맹은 ‘한국 북부 장병’, ‘한미 FTA’, ‘인적 파트너십을 통한 문화교류’의 세 가지 주요한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

추석은 한국의 중요한 명절입니다. 추석은 대한민국이 해외 파견한 4개의 파병부대(한빛, 동명, 아크, 청해)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. 한빛부대가 개최한 추석행사에서 남수단의 누에르 민족의 아동들은 태권도 시범 동영상 시청하였고, 이외 윗놀이 연날리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한빛부대는 보건소 및 의료부스를 설립하여 누에르 아동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장병들은 화용품, 신발 등의 추석선물을 아이들에게 건네 주었습니다. 부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“군복무와 헌신에 감사합니다.” 안전을 기원합니다 “와 같은 감사 인사가 있었습니다.



캠프 험프리에서 실시한 제 9차 9/11 추모 행군에 500여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. 제304통신대대 본부중대장 안토니 프라이데이(Anthony Friday)는 인터뷰에서 “이 행사가 9년 전 캠프 험프리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작은 규모의 행사였는데, 캠프험프리의 규모가 점점 커져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추모행사가 됨에 따라, 행사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”라고 밝혔습니다.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는 “우리 모두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”라고 글을 남겼습니다.

향후 행사

- 10/01:** 국군의 날
- 10/03:** 개천절
- 10/09:** 한글날
- 10/13:** 주한미군 10마일 경주 (후원:KDVA)
- 10/14:** 콜럼버스의 날
- 10/14:** 세종학회(Sejong Society)-KDVA 포럼
- 10/14-16:** 제 2019년 연례 국제 방산 전시회 (AUSA)
- 10/15-20:** 제 2019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(ADEX)
- 10/15-17:** KDVA 주요임원-한국 기업인 및 육군 협회 간 회의
- 10/17:** 한미동맹 파트너십 만찬 (서울)

회원 소식



앤토니 그랜트씨는 대구에 위치한 USO 워커 센터(Walker Center)에 들러 자신의 고종자(高從子)와 치킨나초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랜트씨는 올해 99세로 2차세계대전 및 한국전쟁 당시 병참부대에서 20년 6개월을 복무하였습니다. 그랜트씨는 전역 후에도 국방병참부(DCA)에서 25년간 근무하며 안보 분야에서의 헌신을 이어갔습니다. USO 지도부는 한국에서의 근무경험을 USO의 근무자들과 고객들과 공유해준 그랜트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. 페이스북 페이지 이용자: “그랜트씨, 나라를 위한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. 진정한 전설이십니다!”